

사회

교과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청렴도 등 성과 평가

광주 4위·전남 6위

진보교육감 취임 교육청 성적 미흡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성과 평가(2010년 1~12월)에서 광주는 7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등급 4위(보통)로 전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반면, 전남은 9개 시도교육청 중 6위(보통)로 한 단계 상승했다. 이번 평가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0년에 실시된 교육성과·교육정책·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15개 정량 지표, 정성평가, 종합만족도 및 청렴도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건강 체력평가 등급 비율과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교육과정 선진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학업중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교육비 절감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3위 대구, 4위(공동) 광주·울산, 6위 부산, 7위 서울 순이다. 도 지역은 1위 충남, 2위 경북, 3위 충북, 4위 제주, 5위 경남, 6위 전남, 7위 강원,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광주는 11월 취임) 6개 교육청의 순위는 대부분 낮았다. 광주가 공동 4위를 한 게 가장 높았고 서울은 시간당 9위, 전남·강원·전북·경기는 도단위 6~9위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약 800억~1000억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억원부터 109억원까지 총 1111억원이 차등 지원됐다.

한편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본권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전년 대비 향상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성과 평가

순위	교육청	순위	교육청
1	대전	1	충남
2	인천	2	경북
3	대구	3	충북
4	광주	4	제주
4	울산	5	경남
6	부산	6	전남
7	서울	7	강원
		8	전북
		9	경기

평을 유독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전년 대비 향상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급여 13만원’ 성화대

밀린 월급 오늘 지급

6월분 급여로 13만여원을 지급해 빈축을 산 강진 성화대학이 비난 여론이 빚발치자 22일 전 교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화대 사무처는 이날 교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급여가 늦어

지연합니다. 설립자의 차입금으로 급여를 내일(23일) 지급 예정입니다. 전 교직원은 학교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재정난을 이유로 전 교직원들에게 월급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비 유용 등 비리에 따른 부실 책임을 교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안팎의 비난을 받았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전남교육감에 10대 정책전환 제안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교육위원회 전남지부가 장만재 전남교육감에게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10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2일 장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청에 전달할 정책전환 제안서에서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와 관련해 “사교육 없는 연구학교와 별반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책임자 교체와 새로운 대안 창출 등을 주문했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는 교사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 돌아간다”며 업무경감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차등성급 제도는 교단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학교별 양극화를 심화시켜 오히려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누더기 편식 교육과정으로 당장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중이수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증배 제한 등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담보되는 ‘교육과정 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전교조는 인사제도 혁신과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학교 비정규직노조 설립과 같은 개혁적 조치는 일정량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십억 의약품 리베이트 11명 적발

첫 쌍벌제 적용...의사 등 3명 구속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 병원장, 의료법인 임원, 제약업체 대표 등 11명이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사·약사와 제약업체 임직원 등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도입 이후 의사 등을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발각된 리베이트 액수는 최대 규모다.

한 제약업체 사장은 약품 사용 후

기 설문조사를 빙자해 대규모로 리베이트를 뿌렸다가 들쭉날쭉하며 돈을 받은 의사 20여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지난 두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 조모(56)씨와 리베이트를 받은 M병원장 김모(37)씨, S의료법인 이사장 조모(57)씨 등 3명을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희뉴스



친환경쌀 맞지? 광주시 북구 공무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22일 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 합동점검은 23일까지 이어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강대, 내년부터 등록금 무이자 대출 숙명여대, 빈곤학생 월 30만원 생활비

서강대(총장 이종욱)는 재학생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등록금을 빌려주는 ‘무이자 대어 장학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은 자체 장학기금을 활용해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인 학생에게 무이자 대출 해주고 대출금은 취업 후에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등록금을 분납할 때 경제적 여건에 따라 횟수와 시기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자기 설계 등록금 납부제’를 올해 2학기부터 도입한다.

또 숙명여대는 다음 학기부터 매년 일반기부금 중 20억원 정도

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해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편 부산의 동명대가 올해부터 당장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동명대는 당초 올해 등록금을 작년 대비 연간 4.2% 인상하기로 하고, 1학기 등록금에 일부만 반영했으나 2학기 등록금을 내려 연간 인상 폭을 2.8%로 낮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반값 등록금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동명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연희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50분 달 뜨는 시각 12시 21분

장마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린 뒤 점차 개겠다.

광주	비온뒤 맑음	22/28°C
목포	비온뒤 맑음	22/26°C
여수	비온뒤 맑음	22/24°C
나주	비온뒤 맑음	22/28°C
완도	비온뒤 맑음	22/28°C
구례	호리고가끔비	23/29°C
강진	비온뒤 맑음	23/27°C
해남	비온뒤 맑음	23/27°C
장흥	비온뒤 맑음	22/27°C
순천	호리고가끔비	22/27°C
영광	비온뒤 맑음	22/26°C
진도	비온뒤 맑음	23/27°C
전주	호리고비	23/28°C
군산	호리고비	21/27°C
남원	호리고비	22/28°C
홍산도	비온뒤 맑음	19/24°C

〈오전〉 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먼바다 1.5~2.5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먼바다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먼바다 1.0~2.0m, 연안바다 1.5~2.5m

〈오후〉 바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먼바다 2.0~3.0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먼바다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먼바다 1.0~2.0m, 연안바다 1.5~2.5m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2/25	20/26	20/26	20/27	21/28	21/29

태풍 ‘메아리’ 26일께 국내 영향

오늘도 광주·전남북 돌풍 동반 비

올해 제5호 태풍 ‘메아리(Meari)’가 일요일인 오는 26일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22일부터 본격 시작된 장마비는 27일까지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메아리가 22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일요일인 오는 26일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예보했다.

북한이 이름지은 ‘메아리’는 점차 강해져 오는 25일께 동중국해 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동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6일과 27일 사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2일 광양과 군산, 흑산·홍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22일 오후 6시까지 강우량은 광양 백운산 93mm, 군산 선유도 86mm, 광양 77.5mm, 순천 66.5mm, 장흥 49.0mm, 보성 47.0mm, 광주 46.5mm, 강진 41.0mm, 순창 38.5mm, 군산 37mm, 전주 35.0mm, 고창 33.0mm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3일엔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강수확률 60~80%)가 내린 후 점차 개겠다”며 “23일까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까지 광주와 전남·북 예상 강수량은 20~60mm다.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우리 가까이 ‘111’ 국가안보는 생활입니다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송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	---	----------	---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